비정규직 사서의 취업 현황과 해결방안

김지홍*

목 차

1. 문제제기
2. 사서직 취업 현황 분석
 가. 대학 졸업생의 취업 현황
 나. 사서직(문헌정보학과) 취업 현황
3. 왜 비정규직이 문제인가?
 가. 비정규직 태동의 배경 및 현황
 나. 비정규직 사서의 취업 현황과 문제점
4. 비정규직 사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1. 문제제기

"서러운 일용잡급 투쟁으로 박살내자"

이 문구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촉구집회 참가자가 외치는 구호 중 하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매년 취업시즌만 되면 "올 취업문 작년보다 더 좁다", "하반기 채용계획 없어…"와 같은 문구를 일간신문 헤드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아마 한숨쉬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5년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통 무겁고, 힘 빠지는 소식이다.

국내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정규직 채용은 감소하는 대신 비교적 저임금의 비정규직 고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정리해고제나 근로자 파견제의 법제화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파는 국내 도서관의 취업 시장에도 온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관종에 비정규직 사서가 산재해 있으며, 특히 공공근로 형태의 학교도서관 사서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에 고용기간 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개선노력이 시급한 지경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살펴본 후, 이를 근거로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고를 위해 가급적 통계 데이터와 사서직 취업에 관한 참고문헌을 근거하되, 일부는 사서직 취업 전문 사이트인 사서e마을(http://www.librarian.co.kr, 1997년 9월 오픈)을 다년간 운영하면서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 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사서e마을 관리자 (http://www.librarian.co.kr), kjh1@daegu.ac.kr

2. 사서직 취업 현황 분석

가. 대학 졸업생 취업 현황

청년실업 1백만 시대를 맞고 있다. 흔히들 취업률은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한다. 200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매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5위지만 대학교육 경쟁력은 28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표 1〉 전국 대학 졸업생 취업률을 살펴보면, 의약계열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각각 51.6%, 71.3%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 통계가 다소 부풀려 졌다는 의혹을 좀처럼 떨치기 어려운 것은 그 당사자인 졸업생들이 느끼는 체감 취업률은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각 대학은 취업강좌를 상설화하는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위기의식은 최고를 자부하는 서울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서울대는 2003년 8월 진로취업센터를 열어, 기존 취업정보실을 확대, 개편하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각종 설명회와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서울대라는 네임밸류를 감안하면 좀처럼 보기드문 현상이다.

서울대도 이럴진대 지방대학의 경우를 돌아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취업문제와 연결되어 지방대학의 경우 수험생의 수도권 집중 현상, 상대적 경쟁력 약화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결코 허풍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표 1〉 2003년 대학 졸업생 수 및 취업자 수, 취업률 현황

구 분	종합대학			전문대학		
	졸업생수	취업자수	취업률(%)	졸업생수	취업자수	취업률(%)
인문계	38,801	18,507	47.7	13,264	8,007	60.4
문헌정보	968	502	51.9	758	488	64.4
사회계	65,263	33,531	51.4	54,210	40,306	74.4
교육계	13,893	7,576	54.5	11,317	9,374	82.8
공학계	67,756	34,703	51.2	89,044	63,928	71.8
자연계	36,938	16,598	44.9	19,974	13,829	69.2
의약계	11,498	9,394	81.7	20,440	14,425	70.6
예체능계	23,977	12,813	53.4	38,540	26,175	67.9
총 계	259,094	133,624	51.6	246,789	176,044	71.3

대졸자의 신규 취업문제가 가중되는 또 다른 원인은 경력자 선호현상 때문이다. 오랜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취업재수생 층이 더욱 두터워지고, 1~3년 미만의 비정규직 경험

이 있는 경력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각 대학에서는 산학협동 프로그램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극적인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그나마 산학협동 프로그램이 차선의 해결책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 사서직(문헌정보학과) 취업 현황

비정규직 사서 취업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현황파악의 어려움이다. 그나마 정규직 사서현황은 실태파악이 가능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도무지 얼마나 많은 인원이 어느 관종에 근무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는 비정규직 사서의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해야할 입장에서 볼 때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필자는 사서직 취업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대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채용공고가 될 것이고, 공급은 졸업생이 될 것이다.

〈표 2〉 200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도서관학과 입학생 수는 약 1,200여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부제 시행이전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원의 졸업자를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매년 배출(입학)되는 사서직 인력이 2급 정사서 1,585여명, 준사서 820여명 등 총 입학생 수 2,400여명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표 2〉 2001~2003년 문헌정보학과 입학생 수(명)

구 분	2001	2002	2003
전문대학	896	830	726
종합대학	329	370	457
합 계	1,225	1,200	1,183

하지만, 한국도서관협회의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문헌정보학 입학생 수와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학부제 이후 계열별 모집,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 다양한 형태로 문헌정보학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이는 곧 자격증 취득과 연결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순수 문헌정보학 관련 입학생 수는 1,200여명에 불과하지만, 사서자격증 취득자가 2,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사서직의 대략적인 공급은 연 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수요의 경우는 사서e마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채용공고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3년 한해동안 사서e마을 정규직 채용인원은 약 500여명, 비정규직은 약 1,100여명으로 총 1,6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2001~2004년 사서자격증 발급현황

연도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소 계	누계(1966-'04)
2001	80	1,368	920	2,368	48,849
2002	75	1,471	984	2,530	51,379
2003	106	1,381	949	2,436	53,815
2004	34	1,190	946	2,170	55,985

※ 1998. 8. 1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15,864호)에 의거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사서자격증 발급 및 재교부 업무가 이관됨

※ 3개 사서교육원의 (모집정원 준사서 230명, 2급 정사서 190명) 졸업자 수 및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발급통계가 모두 포함됨.

하지만,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의 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의 경우 여전히 기존 비정규직 사서 및 학과 추천과 같은 비공식 채용이 존재하므로, 비정규직 채용공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수요와 공급이면 산술적인 취업률은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나, 저임금 및 열악한 고용조건에 따른 이직현상과 기졸업자가 취업된 경우 등을 감안하면 전체 평균 취업률이 50% 내외로 조사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범대를 졸업하였다고 졸업생 모두가 교사가 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서자격증 소지 졸업생수(취업재수생 등은 고려하지 않음)와 채용공고만을 두고 산술적인 비교를 하면, 전공을 통한 순수 취업률은 타 학과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2001~2003년 도서관 수의 현황

관 종	2001(A)	2002	2003(B)	증감(B-A)
공 공	420	437	462	△ 42
대 학	420	436	438	△ 18
전 문	578	572	562	▼ 16
학 교	7,918	8,426	9,080	△ 1,162
합 계	3,419	3,447	3,465	△ 1,206

〈표 4〉와 〈표 5〉는 최근 3년간 도서관 수 및 사서직원의 현황이다. 〈표 4〉에 따르면 2001~2003년간 전문도서관 수는 오히려 16개관이 줄어든 반면 다른 관종의 도서관 수는 증가하였는데, 특히 학교도서관은 1,206개관이 늘어났다. 이는 정부차원의 학교도서관 살리기운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사서직원 수 추이를 3년간 관종별로 살펴보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각각 사서직원 223명, 사서교사 110명, 행정직 및 기타 인원 역시 각각 377명, 749명이 증가하였다. 반면 대학도서관은 사서직원이 175명 줄어들었고, 전문도서관의 경우 사서직원은 별차이

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행정직 및 기타직원이 85명 줄어들었는데, 이 결과는 향후 문헌정보학 졸업생들의 취업준비시 관종별 수요 전망을 간접적으로 조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2001~2003년 사서직원 현황

관 종	구 분	2001(A)	2002	2003(B)	증감(B-A)
공 공	사서직	1,735	1,789	1,958	△ 223
	행정직, 기타	3,033	3,179	3,410	△ 377
대 학	사서직	2,356	2,349	2,181	▼ 175
	행정직, 기타	1,569	1,517	1,633	△ 64
전 문	사서직	956	989	982	△ 26
	행정직, 기타	1,100	1,094	1,015	▼ 85
학 교	정규직 사서교사	99	149	209	△ 110
	겸임, 기타	1,910	2,283	2,659	△ 749
합 계	사서직	5,146	5,276	5,330	△ 184
	행정직, 기타	7,612	8,073	8,717	△ 1,105

※ 한국도서관통계 사서직원 현황은 대부분 정규직인 것으로 판단됨.

서울 · 경기 지역 문헌정보학과의 졸업생 현황 조사에 의하면 1996~2001년까지의 조사대상자 1,927명의 평균 취업률은 65.0%로 조사되었고, 전공분야의 취업률(55.4%)이 비전공분야의 취업률(4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구분이 모호하였다. 이 당시의 취업분야가 대학 및 전문도서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5〉 국내 사서직원 수의 최근 3년간 상황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위의 통계에는 제외되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2명의 사서직원 채용이 있었는데, 이는 고무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사서직 취업 현황을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사서직의 취업 환경은 타 학문분야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율이 법정기준의 21.3%에 불과하고, 학교도서관의 경우 한국도서관통계에서 제시한 사서직원 2,868명 중 불과 209명만이 정규직 사서교사로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 교과목 교사가 겸직하거나 비정규직 사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도서관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전담인력이 없는 곳도 부지기수다.

사서직 취업 현황의 핵심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사서의 임금, 근로조건 등 처우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종전의 몇가지 연구에서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고용불안이 몇 년째 장기화되면서 미취업자의 계층이 두텁게 형성되었고, 최

근 공공 및 학교도서관의 정규직 취업이 미미하나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취업을 포기했던 기졸업자가 다시 취업준비에 뛰어들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제한경쟁과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응시 제한연령이 만 40세로 비교적 여유가 있고, 채용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왜 비정규직이 문제인가?

사서직 취업 문제의 쟁점은 일자리의 부족이기보다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그것도 공공근로 형태의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라고는 하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가. 비정규직 태동의 배경 및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1960년대에도 존재하였다.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작았던 1980년대 초반에 노동자 4명 중 1명 꼴로 비정규직이었지만, 사회적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다가 1997년말 외환위기로 인한 구제금융체제를 겪으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노동수요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처를 위한다는 명분의 이른바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경제상황에 따른 고용 또는 해고가 자유롭고, 임금비용이 싸고, 각종 사회보험과 복리후생 등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은 집계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표 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 1.3백만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4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2002년 임금근로자 현황

(20세이상 59세미만, 단위 천명)

구분 / 내용	임금근로자			합 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수(명)	6,684	4,456	2,040	13,180
백분률(%)	50.7	33.8	15.5	100.0

이처럼 최근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노동기본권 보장은 뒷전인 채, 이윤축적 위주의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 고용형태의 유연화가 빚어낸 결과, 비정규직은 계속 증

가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로 치닫을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도서관계 역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다. 도서관의 비정규직 사서가 증가한 것은 1990년대 전산화가 시작되면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소급 D/B 입력을 위한 채용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실업대책 극복을 위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 3월 전주시 13개 초 · 중학교, 서울, 수원 등 경기지역의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 환경을 살펴보면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임금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는 50% 가까이 차이를 보이며, 퇴직금을 받는 비율도 정규직이 88.7%인데 비해 임시직은 20.5%, 일용직은 3.4%로 조사되었다.

둘째, 고용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단기적이고, 계약갱신의 보장이 없으므로 항상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그 계약의 속성상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를 통해 실질적 해고를 당하게 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구제 역시 적용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근로조건에 관한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 등의 적용도 각각 50%와 60%선에 머물고 있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의료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약 60% 정도로 정규직과는 상당한 격차를 나타냈다.

나. 비정규직 사서의 취업 현황과 문제점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서 비정규직 사서의 취업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사회분위기가 도서관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대학 및 전문도서관 위주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또한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가 대부분 완료되고, 국가인턴제 및 공공근로제의 확산, 대학 및 기관의 조직개편 등 악재가 연이어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사서의 취업에 대한 현황파악이 쉽지 않고, 다만 〈표 5〉와 같이 최근 3년간 정규직 사서직원 수의 변화추이를 통해 가늠하는 정도이다.

관종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학도서관의 경우 서울지역 사립대학도서관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대상 도서관 직원 중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 중 차지하는 비율이 39.7%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전국 모든 대학도서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해보면, 4년제 대학도서관만 하더라도 수백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사서가 근무중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200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의 비정규직원은 지난 1999년 30%에서 2002년 38%로 꾸준히 증가해, 2003년 전국 1백25개 사립대 직원 2만2천5백여명 중 40%(8천8

백여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대학도서관 상황을 보면 그나마의 비정규직 자리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1990년대 전산화로 대변되는 D/B구축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최소 인력만을 두고 재계약을 보류하고 있고, 장학금 수혜비율 상승과 인턴십 강화를 위해 근로장학생의 채용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립대는 공익근무요원이 도서관에 파견되어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등 도서관 근무인력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원인이 가미되어 대학의 경우 사서직 취업의 최대 선호 관종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기회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전문도서관 역시 상당수의 비정규직 사서가 근무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어디에도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려웠다. 전문도서관의 경우 비교적 경제상황에 민감하고, 예산 및 직원 규모도 탄력적이다. 〈표 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물경기를 반영하듯, 도서관의 수가 전체 관중 중 유일하게 16개관이나 줄어들었다. 사서직원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서관에 근무하는 행정직 및 기타직원의 수가 85명 줄어들어 대학도서관과 비슷한 취업 공황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타 관종에 비해 비교적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동안 사서e마을에 공공도서관의 비정규직 채용공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공공도서관 개관 수와 정규직원의 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비정규직 사서의 문제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문은 학교도서관이다. 그 현실을 살펴보면 참으로 참담할 정도이다. 비록 사서직렬은 아니지만, 어느 비정규직 교사의 호소문을 통해 간접적이나마 엿볼 수 있다.

> 얼마 전에 급식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던 한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병환으로 사망하여, 5일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조사비는 커녕 일당 깎이고, 주차, 월차도 깎이고 40만원 정도의 월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7년을 일했건만, 돌아온 것은 매몰찬 대접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이 서럽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공공근로제로 대변되는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문제는 임금, 고용, 기타 영역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수가 총 10,334개(분교 631개 제외)이고, 이 중 도서관(실)을 보유한 경우가 약 90%(9,080개관)인데 비해, 정규직 사서교사의 수는 고작 209명이며, 타 교과목 교사가 겸임하거나 비정규직 사서가 채용된 경우가 2,659명이고, 나머지 학교도서관은 아예 전담 인력마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1) 임금

경기도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일당은 3만3천원 정도로 30일 만근을 하면 약 100만원을 받지만 하루라도 쉬면 90만원 받기도 빠듯하다고 한다. 서울의 경우는 일일단가 2만7천여원으로 더 심각하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5만여원에도 못미친다. 〈표 7〉의 학력별 평균임금 현황자료(대졸자 기준)와 비교하면 겨우 50%수준이다.

〈표 7〉 2000~2002년 학력별 평균임금 현황

학 력 별	2000	2001	2002
중졸이하	1,041,664	1,086,595	1,159,521
고 졸	1,185,870	1,243,649	1,362,881
초 대 졸	1,226,448	1,288,937	1,385,666
대 졸	1,789,179	1,893,873	2,035,761
평 균	1,313,910	1,393,059	1,532,750

비정규직 사서의 관종별 임금을 살펴보면 전문도서관이 가장높고, 다음으로 대학, 학교, 공공순으로 나타났다.

(2) 고용불안

비정규직 사서는 저임금 외에 불안한 고용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현 직장에서의 계약단위가 1년 이하인 경우가 전체 83%에 이르는 등 직장생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학교의 특성인 방학중 근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사서교사 중 겨우 19%만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2002년 4월 실시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청 지원 도서관 사서의 연평균 근무일수가 306.58일로 방학중 근로가 보장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3) 4대보험 가입여부

흔히 4대보험으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비정규직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나 가입률이 58~69% 정도로 낮은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등록될 경우 사용자의 보험료 50% 지원이 없어지고,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사서는 정규직이 받는 학자금 · 경조금 등 각종 복지혜택에도 소외되는 등 2중3중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4) 재교육 기회

재교육의 경우 비정규직 사서 대부분이 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에 비해 관외훈련

(업무 세미나, 학술발표회 등)은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서직 취업 환경을 살펴보면, 취업재수생까지 더해져 취업계층은 대단히 두터워졌다. 한마디로 채용기관(기업)은 훨씬 느긋하게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채용기관(기업) 입장에서 볼 때 현장에 바로 투입가능한 경력자 선호로 이어져, 신규졸업자의 취업위기를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다.

또한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분석에서 과거의 고용관행이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즉, 과거에 비정규직을 채용했던 기관일수록 계속적인 비정규직 채용으로 일관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상황을 경계해야할 지경이다.

4. 비정규직 사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비영리기관이고, 비용대 효과면에서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인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취업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직 사서의 채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고용 불안으로 인한 소속감 결여, 실질적 생산성 저하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비정규직 사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그 전개순위는 필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 자기개발

많은 사람이 현재와 같은 취업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단시일에 파격적인 해결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설령 우리가 희망하는 풍부한 일자리가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취업에 대한 최선의 명제는 개인능력이다. 또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나 직업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문헌정보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서직만 고집하기보다 유사직종까지 넘나들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취업전략이 필요하다.

(2) 모두가 참여하고 연대해야 한다

필자는 최근 공공 및 학교도서관의 지속적인 정규직 채용을 보면서, 이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선배사서, 특히 비정규직 사서의 노고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가급적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나 공공도서관의 채용은 그 특성상 공채 성격을 띄게 되므로, 사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마다않고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사서는 연대해야 한다. 개인의 힘은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타 직종과의 연대도 중요하다. 비정규직 사서의 이익만을 부각할 경우 집단이기주의로 왜곡될 우려가 있

기에, 전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그나마 연대투쟁 등 정규직화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전개하는데 비해, 대학 및 전문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는 이마저도 전무한 상태인데, 우선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결집노력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3) 정규직 사서의 참여

〈그림〉 학교도서관 일용직 사서 시위모습
http://www.kwunion.or.kr

비정규직 사서 문제 해결은 정규직 사서의 노력이 중요하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대학 입학때부터 정규직 사서로 보장받은 사람은 없다. 게 중에는 실력이 조금 나아서, 운이 좋아서, 때를 잘 타고나서 정규직이 되었을 뿐, 주위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 모두 우리의 후배고 동료이다.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어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동료애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정규직 사서가 된 모든 관종, 특히 공공 및 학교도서관 사서는 투사의 각오를 할 것을 당부드린다. 왜냐하면 이들의 활약여부가 향후 사서직 인력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경우는 아니지만 금호타이어에서는 정규직 노조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282명을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냈는데 이는 시사점이 크다.

일부에서는 정규직 위주의 노조활동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조활동은 "주로 정규직의 권익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심각하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완충장치로까지 바라보는 등, 정규직 중심의 노조활동이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차별에 일조한 것은 아니었나"는 반성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에 스페인식 노사모델을 권고했다"고 한다. 스페인식 해법은 정규직이 퇴직금 일부를 비정규직에 돌리는 등 정규직의 양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에는 벌칙을,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4) 학계의 관심

사서직의 미래전망에 관한 두 건의 설문조사를 보면, 먼저 2001년 총 772명이 참여한 인터넷 설문에서 "추후 문헌정보학과를 다시 선택하겠느냐" 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67%

가 선택하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미온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김수형의 조사 역시 "주위의 친척 중에 사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헌정보학과 진학을 추천하겠느냐"는 우회적인 질문에 응답자 중 61%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대학교육이 취업을 전제로 한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지만, 현 경제상황에서는 취업여부가 학과선택의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학계에서는 국가정책 수립 참여 등 거시적 접근과 더불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높은 취업률은 그만큼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다는 반증이며, 많은 경우 학과의 취업률이 그 학과의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

(5) 정책적인 접근

4월 15일 총선이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으로 노동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 일간신문은 17대 국회 4대 쟁점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하고 있다.

(가) 사서교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과목 교사 1명의 채용을 줄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서교사의 획기적 채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를 교원정원의 테두리에 묶어두어서는 해결기미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채용도 일반직 공무원과의 헤게모니에서 볼 때 대개 후순위일 때가 많다.

사실 국가적 혹은 정책적 대안 제시라는 것이 대체로 미온적인 경향이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 상황에서 그나마 사서직 채용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공공 및 학교도서관은 모두 정책적 접근이 해법이기 때문이다.

(나) 비정규직에 대한 지위와 보상

비정규직 사서 채용 문제가 단시일내 해결되지도 않겠지만, 현재와 같은 저임금, 열악한 고용조건 속에서, 그들에게 마냥 희생을 강요해서도 곤란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일부 시간제 사서의 경우 정규직 사서와 거의 동등한 지위와 임금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국내의 경우도 비정규직 사서라 할지라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과 안정된 고용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 글을 맺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1997년 10월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제정하였다. 이 도서관인윤리선언이 비정규직 사서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졌다.

■ 참고문헌 ■

곽동철,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의 학부 구성 및 사서 자격 인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 1999.

교육통계 정보검색, 한국교육개발원, http://std.kedi.re.kr/

국민일보, "출판수첩 : 사서교사 없는 무늬만 학교도서관", 2004. 3. 26 문화면

김경미, "대학도서관의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사립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2002.

김수형, "우리나라의 사서직 고용불안정 실태 : 비정규직 사서 실태조사 분석", 디지틀도서관, 2001년 가을호, 겨울호

김지홍, "사서직 취업의 현황분석 및 대책", 디지틀도서관, 2000년 봄호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동아일보, "17대 국회 4대 쟁점법안 〈2〉 비정규직 논란, 2004. 4. 29.

문화관광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안)", 2002.
http://www.hakdo.net/bbs/data/2004033147349063.hwp

문화일보, "학교 비정규직 평균 월급 65만원", 사회면, 2003. 9. 22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자", 2001, 3. http://www.outsourcing21.com/binary/경주자료2.hwp

오마이뉴스, 2004년 5월 4일, http://www.ohmynews.com

이성숙,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사회진출 동향에 관한 연구 : 1996~2001년 서울 · 경기 지역 4년제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도서관 제57권 제2호, 2002

이주희, 이성균,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12월,
http://www.kli.re.kr/

임성관, "비정규직 사서의 태동에서 현황까지, 그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 : 학교도서관 현장의 비정규직 사서들을 중심으로", 시민과 도서관, 제4권 제3호(통권32호)

장인호, "사서직 취업환경과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고찰", 문헌정보학연구(대진대 문헌정보학과) 제5집, 2001.

통계정보시스템, 통계청, http://kosis.nso.go.kr/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토론회, 2003년 5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

한경비즈니스, "청년실업 1백만시대 위기감 도는 대학가", 2004. 4. 25.

한국대학신문, 사회종합면, "사립대 직원 40%가 비정규직"
http://www.unn.net/gisa/gisa_read.asp?key=19287&fl_tp=01

한국도서관통계, 한국도서관협회, 2001-2004.